



방귀쟁이 촌티 택시

교안 작성 : 김혜숙
김혜리 글 | 정문주 그림
키큰도토리 | 11,000원 | 저학년

책 소개

《방귀쟁이 촌티 택시》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는 처음에는 철광석이었다가 제철소로 옮겨져 분홍색과 노란색의 택시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리고 ‘촌티 택시 주식회사’에서 일하게 된다. 바위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받은 말하는 능력과 ‘행복 화살’ 덕분에 첫날부터 촌티 택시는 많은 일을 겪게 된다. 택시의 첫 손님이었던 유선이 엄마는 행복 화살 덕분에 딸 유선과 헤어지지 않게 되었다. 형편이 어려워져 보육원에 유선을 맡길 생각이었는데, 행복 화살을 맞고 마음을 바꾼 것이다. 또 주인을 잃고 차 도둑들에게 끌려다니던 강아지 명키를 구해 준 것도 촌티 택시였다. 그런가 하면 동네 아이들이 몸이 불편한 순호에게 뒷세를 부릴 때도 아이들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도 촌티 택시였다. 아니, 정확히는 촌티 택시가 날린 ‘행복 화살’ 때문이다. 이처럼 작가는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행복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전한다. 그래서 손톱에 기름때가 낀 정비소 총각도, 택시를 몰며 하루하루 뼈뺏하게 사납금을 채우는 택시 기사도 행복의 전도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방귀쟁이 촌티 택시’는 오늘도 택시를 타고 내리는 수많은 ‘갑남을녀’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동화로 풀어낸다. 따뜻한 이야기를 산뜻하고 발랄하게 색칠해낸 정문주의 그림은 촌티 나는 택시를 제대로 살려내어 눈을 즐겁게 한다.

활동 목표

1.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봉봉 화살을 맞고 변화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2. 등장인물을 통해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도 이웃을 도우며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3. 철광석이었던 ‘나’가 택시로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생각 열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캄캄한 땅 속에서 수천 년을 잘 견딘 대가로 바위 할아버지가 철광석인 ‘나’에게 준 선물은 무엇인가요?
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②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
2. 바위산처럼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촌티 택시에게, 자동차도 가끔씩은 피를 내어 콜록거리며 아픈 척을 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아서 ② 자동차를 너무 사랑해서
3. 올해 3학년이고, 분홍색 꽃핀을 꽃고 보조개가 있는 특징을 가진 명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① 순호 ② 서영이



4. 멋진 주인을 만나고 싶은 촌티 택시가, 자신이 지켜본 주인 중에서 ‘가장 착한 주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① 김씨 아저씨 ② 순호

5. 도둑을 잡은 뒤로 촌티 택시의 몸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지게 되었나요? ① 개인택시 ② 명예 택시

생각 펼치기

날아라 봉봉 행복 화살

이 책의 주인공인 촌티 택시는 요란한 엔진 소리 때문에 ‘방귀쟁이’라고 놀림을 받지만, ‘봉봉 행복 화살’로 사람들 마음속에 묻혀 있던 행복한 기억을 찾게 해 줍니다. 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도와주지요. 촌티 택시의 행복 화살 덕분에 첫 손님이던 유선이 엄마와, 자전거를 유난히 좋아하는 순호는 텃세를 부리려는 아이들로부터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도둑으로부터 택시를 지키기도 하지요. 다음 그림을 보고 촌티 택시의 ‘행복 화살’을 맞고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촌티 택시가 택시 도둑을 잡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보육원에 유선을 맡기려던 유선이 엄마는 행복 화살을 맞고,





몸이 불편한 순호에게서 자전거를 빼앗아 타려고 으름장을 놓던 아이들이 행복 화살을 맞고,





아저씨가 화장실에 간 순간 자동차 도둑들이 택시에 시동을 걸고 택시를 훔쳐 달아나려고 하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촌티 택시 주식회사』로 옮겨진 촌티 택시는 운행하는 첫날, 자신을 운전하게 될 김씨 아저씨의 얼굴을 살펴보고 금세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흰색 자동차의 주인처럼 말끔한 사람이기를 바랐는데, 길게 자란 구레나룻 때문인지 김씨 아저씨의 첫인상이 맘에 들지 않았거든요. 김씨 아저씨, 또 김씨 아저씨와 교대 근무를 한 박씨 아저씨는 촌티 택시가 예상한 대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 ① 김씨 아저씨는 병든 어머니를 10년째 모시고, 방 한 칸에 다섯 식구가 비좁게 살면서 가난 때문에 한 때 가족과 헤어지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김씨 아저씨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인가요?



- ② 박씨 아저씨가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교하는 수민이를 태우고 '희망 어린이집'까지 온 까닭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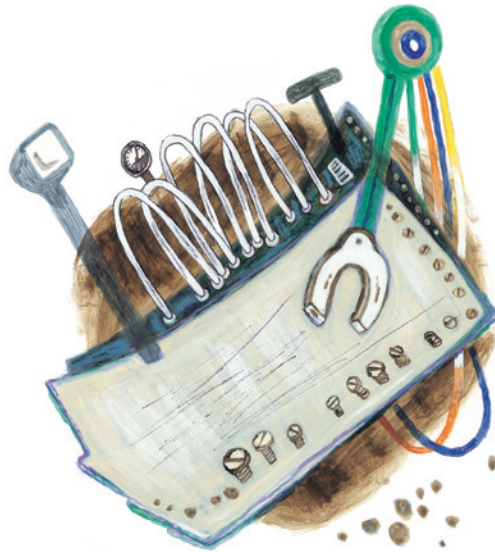


- ③ 두 아저씨의 모습을 통해 방귀쟁이 촌티 택시는 어떤 점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는 철광석이었던 ‘나’는 어느 날 커다란 기계손에 이끌려 제철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뜨거운 용광로를 참고 견디었더니 튼튼한 강철판이 되었지요. 그리고 또다시 자동차 공장으로 옮겨져 구멍을 뚫고, 붙이고, 조이고, 칠하고, 바퀴까지 달아서 택시로 변신합니다. 다음 철광석에서 택시로 변신한 방귀쟁이 택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준비물 : 스케치북, 연필, 지우개, 색연필 등】



변신

